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융합 연구

위성옥^{1*}

¹조선간호대학교

Convergence Study of Learned Helpless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Seoung-Uk Wie^{1*}

¹Division of Nursing, Chosun Nursing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정도와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있는 변인을 규명하여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G도 H대학교와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7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학습된 무기력 점수는 5점 중 2.55점(±.61)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통제력 결여'가 2.85점(±.44)으로 가장 높았고, 교우관계, 학업성적, 가족 간 협력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교우관계가 안 좋거나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가족 간 협력정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서 학습된 무기력이 높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하여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대학생, 학습된 무기력, 교우관계, 가족 간 협력관계, 학업성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learned helplessness and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ffecting their learned helplessness. We have carried out research on 799 students.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s a result, the mean score of learned helplessness was 2.55 (±.61), Of the sub-domains, 'lack of control' was the highest with 2.85 (±.44). And It was found that the helplessness was high in the case of poor fellowship, low academic achievement and poor family cooperation. These resul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hrough the follow-up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management to reduce the learned helplessness by developing differentiated program that can reduce the learned helplessness of university students by identifying variables that can explain the learned helplessness of university students.

• Key Words : college students, learned helplessness, fellowship, family cooperation, academic achievement

1. 서론

청소년기를 지나 성년기에 접어든 대학생은 대학입시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1.1 연구의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위성옥(wienona@daum.net)

Received April 9, 2017

Accepted August 20, 2017

Revised July 13, 2017

Published August 28, 2017

질 수 있는 시기로 여겨지며, 동시에 취업 및 국가고시 준비 등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에 속해 있는 대상으로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과정에 속해있는 대학생이라도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학생이 관찰자로 강의실에 자리 잡고 있는 무기력 행동은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진 것이지 학생의 선택의 결과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무기력한 행동을 간과하거나 학생을 탓할 것이 아니라[1] 교수진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청년층으로 육체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사회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2] 다양한 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경우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거나 수업 및 대인관계에서 소외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Kang 등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통제불능감을 갖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3].

학교생활에서 과제 수행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은 자신감 등과 같은 동기부여 효과를 가져와 후속 과제의 성공에 더욱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과제 수행에서의 반복적인 실패는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 하여 차후 과제 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4,5,6]. Lim 등은 학업 성취가 낮아 학교에서 만성적 실패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점차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므로 수동성이 증가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동기가 감소하여 수행능력이 저하되면서 대응적인 노력도 멈추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7]. 대학생의 경우 학교환경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무기력이 추후 학업성취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는 경쟁적 학습환경, 학업스트레스, 대학입시제도 등의 영향으로 학습된 무기력이 높은 편이며[8],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수준의 학습된 무기력을 보였다[9].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은 교육장면 뿐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속성이 감소되고 우울 정서가 높아져서 [10],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되므로 Lim 등은

학습된 무기력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사회적 적응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7].

따라서 학습자의 무기력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중·고등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로 자기 주도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교수학습모형 개발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그 공부나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동기유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Park은 다음으로 어느 정도 동기 유발이 되고 나면 자기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긍정적 태도, 낙관적 성격을 갖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11]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 제공이 학습된 무기력의 효과적인 방지책 및 해결책이며[8], 특히 동료로부터의 지지는 학습자로 하여금 숙달목표를 추구하도록 돕는다[12]고 하였다. 또한 학습된 무기력의 심각성에 따라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대학생활의 안정감을 유지시키고 미래에 대한 직업적 확신과 자기 발전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긍정적 요소 [13]로서의 자기효능감 증진 훈련,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습된 무기력이 감소하였으며[14], 최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을 통해 학습동기와 문제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15] 노력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시기에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관문을 거친 대학생들도 여전히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고, 이 무기력은 초,중,고등학생 때부터 익숙해져 있는 학습된 무기력의 결과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학습된 무기력은 전체 학령기를 통해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고등교육의 장인 대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습된 무기력 관련 국내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 학교 및 개인변인과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3,7,8,14,16]와 학습된 무기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책에 대한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는 지역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감소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모형 개발, 지방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및 ‘무기력 행동’, 간호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및 ‘무기력 행동’과 관련된 연구[1,11,17]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된 무기력의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있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가정 및 학교에서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을 예방

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학교환경 변인들을 뚜렷하게 인식하여 부정적인 자아상과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7].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정도와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키고, 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효과적인 준비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정도와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있는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습된 무기력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된 무기력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있는 가정요인과 학교요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정도와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있는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G도 H대학교와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2013년 10월 0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서면 동의한 7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 검정력 0.95로 하였을 때 최소 400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 대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은 반복적인 실패경험에 의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실패할 것이라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Shin(1990)이 개발한 학습된 무기력 진단척도 45문항으로 측정하였다[18].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측정도구는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상태인 '자신감 결여'(17문항), 이유 없이 외롭고 주의 집중이 어려운 '우울-부정적 인지'(10문항), 타인에게 복종적인 상태인 '수동성'(6문항), 그때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르는 '통제력 결여'(4문항),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하는 '지속성 결여'(3문항), 자신이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과시욕 결여'(3문항), 그리고 충동적이며 남을 탓하는 '책임감 결여'(2문항) 등 총 7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각 문항의 총점을 평균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된 무기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1990)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7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습된 무기력은 빈도분석으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된 무기력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있는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성별은 남학생 5.9%, 여학생 94.1%였으며, 학년은 1학년이 30%로 가장 많았고, 4학년이 22.2%로 가장 적었다. 부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49.3%로 가장 많았고, 모의 학력은 고졸이상이 55.6%이었다. 전공 선택 동기로는 '적성에 맞아서'가 31.5%, '성적에 맞춰서 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권유로'가 68.5%로 더 많았으며, 교우관계는 '좋은 편이다'로 답변한 응답자가 49.8%, '보통이나 안 좋은 편이다'가 50.2%이었다. 지난학기 학업성

적은 평점평균 3.0이상~4.0미만이 70.0%로 가장 많았고, 가족 간 협력정도에서 ‘협력이 잘 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4.4%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14.0%가 ‘협력이 잘 안 된다’로 응답하였다<Table 1>.

일반적 특성 중 ‘부모의 학력’과 ‘가족 간 협력정도’는 가정요인에 해당되며, ‘전공 선택 동기’와 ‘교우관계’ 및 ‘학업성적’은 학교요인에 해당된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7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rade	First	240 (30.0)
	Second	201 (25.2)
	Third	181 (22.7)
	Forth	177 (22.2)
Education degree of father	below middle school	56 (7.0)
	high school	349 (43.7)
	more than university	394 (49.3)
Education degree of mother	below middle school	64 (8.0)
	high school	444 (55.6)
	more than university	291 (36.4)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in aptitude	252 (31.5)
	by someone's invitation	547 (68.5)
Degree of fellowship	good	398 (49.8)
	not good	401 (50.2)
academic achievement	<3.0	134 (16.8)
	3.0 ~ <4.0	559 (70.0)
	≥4.0	106 (13.3)
Degree of family cooperation	difficult	112 (14.0)
	moderate	252 (31.5)
	good	435 (54.4)

3.2 학습된 무기력

본 연구 대상자의 학습된 무기력의 전체 평균점수는 5 점 중 2.55점(±.61)이었으며, 하위영역 별 평균점수에서 그때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르는 ‘통제력 결여’가 2.85점(±.44)으로 가장 높았고, 이유 없이 외롭고 주의 집중이 어려운 ‘우울-부정적 인지’가 2.69점(±.81)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하는 ‘지속성 결여’가 2.64점(±.76), 자신이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과시욕 결여’가 2.63점(±.58), 충동적이며 남을 탓하는 ‘책임감 결여’가 2.44점(±.79), 타인에게 복종적인 상태인 ‘수동성’은 2.43점(±.81),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상태인 ‘자신감 결여’가 2.41점(±.7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학습된 무기력의 하부영역에서 점수가 높은 문항은 ‘장래에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역코딩)’가 3.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편이다(역코딩)’ 3.36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멍하니 있기를 잘

한다’가 3.31점, ‘공연히 우울해질 때가 많다’ 2.93점, ‘일이나 공부를 하기 싫어서 자주 쉰다’가 2.90점, ‘자신을 원망할 때가 많다’ 2.85점, ‘후회하는 일을 자주 한다’가 2.8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2> Learned Helplessness N = 799

Sub-variable	Mean	S.D
Lack of confidence	2.41	±.75
Cognition depression and negative	2.69	±.81
Passiveness	2.43	±.81
Lack of control	2.85	±.44
Lack of continue	2.64	±.76
Lack of display	2.63	±.58
Lack of responsibility	2.44	±.79
Total	2.55	±.6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된 무기력

본 연구 대상자의 학습된 무기력은 성별, 학년, 부모의 학력, 전공선택동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우관계($t=73.436, p<.001$), 학업성적($F=5.215, p<.05$), 가족간 협력정도($F=25.90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습된 무기력에서 하위 영역 중 ‘자신감 결여’ 영역에서 교우관계($t=51.421, p<.001$), 학업성적($F=7.140, p<.001$), 가족간 협력정도($F=27.41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우관계에서 ‘교우관계가 보통이나 안좋은 편이다’라고 답변한 그룹이 2.60점으로 ‘좋은 편이다’ 그룹의 2.23점보다 학습된 무기력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검정 결과 지난해 학업성적에서 평점평균 ‘3.0미만’인 그룹의 2.63점이 평점평균 ‘3.0이상~4.0미만’ 그룹의 2.39점과 ‘4.0이상’인 그룹의 2.29점보다 학습된 무기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족간 협력정도에서는 ‘협력이 잘 안된다’ 그룹이 2.78점, ‘보통이다’ 그룹에서 2.52점, ‘협력이 잘 된다’ 그룹 2.26점으로 순서대로 높았다.

‘우울-부정적 인지’ 영역에서도 교우관계($t=48.613, p<.001$), 학업성적($F=3.089, p<.05$), 가족간 협력정도($F=25.08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우관계가 보통이나 안좋은 편이다’라고 답변한 그룹이 2.88점으로 ‘좋은 편이다’ 그룹의 2.49점보다 학습된 무기력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검정 결과 지난해 학업성적에서 평점평균 ‘3.0미만’인 그룹의 2.84점이 평점평균 ‘3.0이상~4.0미만’ 그룹의 2.67점과 ‘4.0이상’인 그룹의 2.60점보다 학습된 무기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족간

협력정도에서는 ‘협력이 잘 안된다’ 그룹이 3.08점, ‘보통이다’ 그룹에서 2.79점, ‘협력이 잘 된다’ 그룹 2.53점으로 순서대로 높았다.

‘수동성’ 영역에서 교우관계($t=129.224, p<.001$), 가족 간 협력정도($F=6.96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우관계에서 ‘교우관계가 보통이나 안좋은 편이다’라고 답변한 그룹이 2.73점으로 ‘좋은 편이다’ 그룹의 2.13점보다 학습된 무기력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검정 결과 가족 간 협력정도에서는 ‘협력이 잘 안된다’ 그룹이 2.62점으로 ‘보통이다’ 그룹의 2.51점과 ‘협력이 잘 된다’ 그룹의 2.34점보다 높았다.

‘통제력 결여’ 영역에서 교우관계($t=9.522,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우관계가 보통이나 안좋은 편이다’라고 답변한 그룹이 2.89점으로 ‘좋은 편이다’ 그룹의 2.80점보다 학습된 무기력 점수가 높았다.

‘지속성 결여’ 영역에서 교우관계($t=17.160, p<.001$), 학업성적($F=9.882, p<.001$), 가족간 협력정도($F=12.93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우관계에서 ‘교우관계가 보통이나 안좋은 편이다’라고 답변한 그룹이 2.75점으로 ‘좋은 편이다’ 그룹의 2.53점보다

학습된 무기력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검정 결과 지난학기 학업성적에서 평점평균 ‘3.0미만’인 그룹의 2.82점과 2.65점인 ‘3.0이상~4.0미만’ 그룹에서 ‘4.0이상’인 그룹의 2.38점보다 학습된 무기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족 간 협력정도에서는 2.97점인 ‘협력이 잘 안된다’ 그룹이 ‘보통이다’ 그룹의 2.63점과 ‘협력이 잘 된다’ 그룹 2.64점보다 높았다<Table 3>

‘과시욕 결여’ 영역에서 교우관계($t=33.263, p<.001$), 가족 간 협력정도($F=9.13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우관계에서 ‘교우관계가 보통이나 안좋은 편이다’라고 답변한 그룹이 2.75점으로 ‘좋은 편이다’ 그룹의 2.52점보다 학습된 무기력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검정 결과 가족 간 협력정도에서는 ‘협력이 잘 안된다’ 그룹이 2.83점으로 ‘보통이다’ 그룹의 2.66점과 ‘협력이 잘 된다’ 그룹의 2.57점보다 높았다.

‘책임감 결여’ 영역에서는 모의 학력($F=3.538, p<.05$)과 전공선택동기($t=5.934, p<.05$), 교우관계($t=13.733, p<.001$), 학업성적($F=10.802, p<.001$), 가족 간 협력정도($F=9.16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그룹에서 2.63점으로 ‘대졸 이상’ 그룹의 2.36점보다 학습된 무기력 정도가 높았다.

<Table 3> Learned Helpless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799

Characteristics	Learned Helplessness (total)		Lack of confidence		depression and negative		Passiveness		Lack of control		Lack of continue		Lack of display		Lack of responsibility		
	M	t/F	M	t/F	M	t/F	M	t/F	M	t/F	M	t/F	M	t/F	M	t/F	
	(SD)	(p)	(SD)	(p)	(SD)	(p)	(SD)	(p)	(SD)	(p)	(SD)	(p)	(SD)	(p)	(SD)	(p)	
Education degree of mother	middle school ^a	2.69 (.56)		2.57 (.75)		2.86 (.66)		2.56 (.78)		2.96 (.31)		2.77 (.63)		2.78 (.53)		2.63 (.71)	
	high school ^b	2.54 (.59)	2.118 (.121)	2.39 (.74)	1.493 (.225)	2.67 (.81)	1.531 (.217)	2.43 (.80)	.924 (.398)	2.84 (.46)	2.193 (.112)	2.65 (.74)	1.258 (.285)	2.63 (.59)	2.261 (.105)	2.46 (.78)	3.538 (.030) a>c
	university ^c	2.53 (.64)		2.42 (.75)		2.68 (.83)		2.40 (.84)		2.83 (.44)		2.60 (.82)		2.61 (.58)		2.36 (.80)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in aptitude	2.51 (.59)	1.269 (.260)	2.36 (.75)	2.053 (.152)	2.67 (.84)	.100 (.752)	2.40 (.78)	.506 (.477)	2.89 (.38)	3.447 (.064)	2.56 (.74)	3.802 (.052)	2.61 (.52)	.863 (.353)	2.34 (.75)	5.934 (.015)
	by someone invitation	2.56 (.62)		2.44 (.75)		2.69 (.79)		2.45 (.83)		2.83 (.47)		2.68 (.77)		2.65 (.61)		2.48 (.80)	
Degree of fellowship	good	2.37 (.59)	73.436 (.000)	2.23 (.72)	51.421 (.000)	2.49 (.78)	48.613 (.000)	2.13 (.74)	129.224 (.000)	2.80 (.46)	9.522 (.002)	2.53 (.75)	17.160 (.000)	2.52 (.58)	33.263 (.000)	2.33 (.78)	13.733 (.000)
	difficult	2.72 (.58)		2.60 (.74)		2.88 (.78)		2.73 (.77)		2.89 (.42)		2.75 (.76)		2.75 (.57)		2.54 (.78)	
Academic achievement	<3.0 ^a	2.69 (.63)		2.63 (.77)		2.84 (.81)		2.43 (.90)		2.89 (.45)		2.82 (.75)		2.67 (.61)		2.67 (.77)	
	3.0~<4.0 ^b	2.53 (.59)	5.215 (.006) a>c	2.39 (.73)	7.140 (.001) a>b,c	2.67 (.78)	3.089 (.046) a>c	2.44 (.79)	.079 (.924)	2.83 (.43)	1.046 (.352)	2.65 (.74)	9.882 (.000) a,b>c	2.64 (.56)	.792 (.453)	2.43 (.76)	10.802 (.000) a>b>c
	≥4.0 ^c	2.45 (.68)		2.29 (.79)		2.60 (.91)		2.40 (.83)		2.87 (.52)		2.38 (.84)		2.58 (.68)		2.20 (.87)	
Degree of family cooperation	difficult ^a	2.85 (.63)		2.78 (.79)		3.08 (.85)		2.62 (.89)		2.89 (.36)		2.97 (.85)		2.83 (.55)		2.69 (.84)	
	moderate ^b	2.62 (.56)	25.902 (.000) a>b>c	2.52 (.69)	27.414 (.000) a>b>c	2.79 (.73)	25.080 (.000) a>b>c	2.51 (.75)	6.967 (.001) a>c	2.86 (.45)	1.044 (.352)	2.63 (.73)	12.935 (.000) a>b,c	2.66 (.58)	9.133 (.000) a>b,c	2.48 (.73)	9.160 (.000) a>b,c
	good ^c	2.42 (.61)		2.26 (.75)		2.53 (.81)		2.34 (.81)		.85 (.44)		2.64 (.76)		2.57 (.58)		2.35 (.79)	

^{a,b,c,d}=Post hoc test

또한 전공선택동기에서 '성적에 맞춰서 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권유로'로 응답한 그룹이 2.48점으로 '적성에 맞아서'라고 응답한 그룹의 2.34점보다 높았고, '교우관계가 보통이나 안좋은 편이다'라고 답변한 그룹이 2.54점으로 '좋은 편이다' 그룹의 2.33점보다 높았다. 지난학기 학업 성적에서 평점평균 '3.0미만'인 그룹은 2.67점, '3.0이상~4.0미만' 그룹 2.43점, '4.0이상'인 그룹이 2.20점으로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간 협력정도에서는 '협력이 잘 안 된다' 그룹이 2.69점으로 '보통이다' 그룹의 2.48점과 '협력이 잘 된다' 그룹의 2.35점보다 높았다.

3.4 가정요인, 학교요인과 학습된 무기력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학습된 무기력과 가정요인 및 학교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가정요인 중 '가족 간 협력정도'(r=.290, p<.001)와 학교요인 중 '교우관계'(r=-.247, p<.001)와 '학업성적'(r=.110, p<.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정도와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있는 가정요인과 학교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키고, 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준비를 도모하는데 효과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학습된 무기력은 전체 평균점수 5점 중 2.55점으로,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사이버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6]에서 2.33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는 2.46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16]에서의 2.31점보다 높았고,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58점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학습된 무기력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나 초등학교가 학습된 무기력감을 고등학교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장기간의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면서 만성화되

었기 때문에 민감성이 과소평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19]에 의하면 대학생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학습된 무기력감이 더 적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학습된 무기력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하위영역 별로 그때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르는 '통제력 결여'가 2.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유 없이 외롭고 주의 집중이 어려운 '우울-부정적 인지'가 2.69점,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하는 '지속성 결여'가 2.64점, 자신이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과시욕 결여' 2.63점, 충동적이며 남을 탓하는 '책임감 결여'가 2.44점, 타인에게 복종적인 상태인 '수동성'은 2.43점,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상태인 '자신감 결여'가 2.4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19]의 '수동성', '과시욕 결여', '자신감 결여', '책임감 결여', '지속성 결여', '우울 및 부정적 인지', '통제성 결여'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크게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수동성을 제거하고 자신감과 적극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19],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지속성,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신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습된 무기력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가정요인인 가족 간 협력관계와 학교요인인 교우관계, 학업성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교우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학습된 무기력이 2.72점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지난학기 학업성적이 3.0미만인 그룹이 2.69점으로 4.0이상인 그룹보다 학습된 무기력 정도가 높았다. 가족 간 협력정도에서는 협력이 잘 안된다고 응답한 대학생 그룹에서 학습된 무기력이 2.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교우관계가 안 좋거나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가족 간 협력정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서 학습된 무기력이 높았고,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9,20]와 유사하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의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성적이 낮을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된 연구[3]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학습된 무기력의 하위영역에서 교우관계가 안 좋은 경우 ‘자신감 결여’, ‘우울-부정적 인지’, ‘수동성’, ‘통제력 결여’, ‘지속성 결여’, ‘과시욕 결여’, ‘책임감 결여’ 전 영역에서 학습된 무기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교우관계가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교우관계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학습된 무기력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정도와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있는 가정요인과 학교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키고, 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준비를 도모하는데 효과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은 가정요인인 가족 간 협력정도와 학교요인인 교우관계와 학업성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부 4년제 대학교 학생들을 편의 추출하여 시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가정요인과 학교요인 중 일부 변인만을 대상으로 학습된 무기력의 차이를 규명한 결과이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개인요인, 가정요인 및 학교요인 중에서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하여 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 A. Jun, J. H. Park, "A Study on effective variables associated with provincial university students' learned helplessness and helplessness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7, No. 1, pp. 57-81, 2010.
- [2] S. I. Choi, K. H. Choi,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research of the undergraduate orchestra club activities - A convergent aspects of statistical method and opinion min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25-31, 2015.
- [3] H. W. Kang, Y.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ress, Result and Learned Helplessn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5, No. 4, pp. 883-897, 2004.
- [4] Seligman, M. E. P., "Helplessness :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 W. H. Freeman.
- [5] A. Y. Kim, "Development of Standardized Student Motivation Scal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Vol. 15, No. 1, pp. 157-184, 2002.
- [6] K. H. Park, "The Influence of Learned Helplessness and Failure Tolera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Job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Vol. 9, No. 1, pp. 61-76, 2008.
- [7] K. H. Lim, "The Relationships of Home, School, and Individual Variables to Learned Helples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5, No. 2, pp. 473-507, 2004.
- [8] M. J. Lee, M. M. Bong, "Learned Helplessness in School During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1, No. 1, pp. 77-105, 2013.
- [9] I. N. Ok, "A Study on Students' learned powerlessness in the social studies classroom activitie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 36, No. 2, pp. 105-139, 2004.
- [10] Burhans, K. K., & Dweck, C. S., "A Study on Students' learned powerlessness in the social

- studies classroom activitie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 36, No. 2, pp. 105-139, 2004.
- [11] S. J. Park, “A Study on the Learning-Instruction Model for Learned Helplessness Decrease of the College”,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9, No. 1, pp. 95-113, 2012.
- [12] H. Jeon, M. M. Bong, S. I. Kim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in the prediction of motivation by perceived competence and classroom goal structur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4, No. 4, pp. 999-1027, 2010.
- [13] K. M. Yang,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1, pp. 113-123, 2016.
- [14] K. S. Oh, “Influence of Self-efficacy program on the Learned helplessness”, Jeju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15] S. J. Kang, E. J. Kim, H. J. Shin, “Convergence Study about Problem-based Learn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Skills, Academic Self-efficacy,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2, pp. 33-41, 2016.
- [16] M. A. Jeon, S. Y. Lim, “A relationship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stress coping strategy in vocationa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Industrial Education Association, Vol. 35, No. 1, pp. 1-19, 2010.
- [17] H. K. Yoon, “A Study on Nursing students’ Learned helplessness and Helplessness behavior”,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9, No. 2, pp. 244-256, 2015.
- [18] K. M. Shin, “On the development of a learned helplessness scale.”, Konkuk University doctoral thesis, 1990.
- [19] M. J. Cheong, H. S. Yang, E. Y. Chae, S. H. Kim, “Meta-Analysis on Factors related with the Learned Helplessness of an Adolescent”,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23, No. 5, pp. 31-65, 2016.
- [20] S. H. Kweon, S. N. Kweon,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ttitude and learned helplessness on computer game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3, No. 4, pp. 59-69, 2008.

저자소개

위 성 옥(Seoung-Uk Wie)

[정회원]



- 2002년 8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2012년 1월 : 서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2년 3월 ~ 2015년 2월 :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1.응급간호 2.환자안전 3.여대생 음주 4.대학생의 학습된 무기력